

노년의 열정으로 황금빛 희망 클릭

“이러한 글 작성방법을 HTML이라고 하는데, 마우스로 짤막하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방식의 문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어떤 곳을 마우스로 누르면 바로 페이지가 열리지요? 그런 페이지들이 모두 HTML로 만든 것이죠.”

10월 28일 서울 삼천사가 운영하는 시립 은평노년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컴돌이 봉사대’를 찾았다. 17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컴퓨터 강좌 도우미’가 바로 이들. 복지관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포레 어르신들의 컴퓨터 교육을 보조하고자 나선 봉사대다. 2000년 제 2기 가을 강좌를 수료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니 컴퓨터 도우미 경력도 어느덧 3년이 다 돼간다.

“처음에는 당연히 컴맹이었지요. 남아도는 시간에 산 오르는 것이 지겨웠던 터에 우연히 복지관의 ‘컴퓨터 무료교육’ 광고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컴돌이 봉사단장 김윤식(75) 할아버지. 철순을 넘겨 만지게 된 컴퓨터에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글 프로그램을 배우는 3개월 기본과정을 폐교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본과정’에 이어 ‘인터넷 과정’과 ‘홈페이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그는 ‘보조요원’을 넘어서 직접 강의에 나설 정도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연령대가 고만고만하다보니 한마디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막히는 부분도 비슷하고 재미 있어 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그래서 양쪽 모두 즐기면서 배우고 있지요.”

은평복지관 분소 어르신전문문화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번꼴로 ‘한글 중·고급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권문래(70) 할아버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문화센터를 지키는 전

천후 도우미가 됐다. 한편의 강의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난관에 부딪혀 찾아오는 ‘제자 어르신’들을 위해 늘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가 펼치는 일상의 봉사 때문일까. 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격의없이 드나드는 사랑방 풍경을 자아낸다. 전직 외교관에서부터 미장이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수강생들은 다양하지만, 이런저런 혼 혼한 미답에 어르신들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그렇게 편안한

바라밀현장

자발적으로 모인 ‘은빛 봉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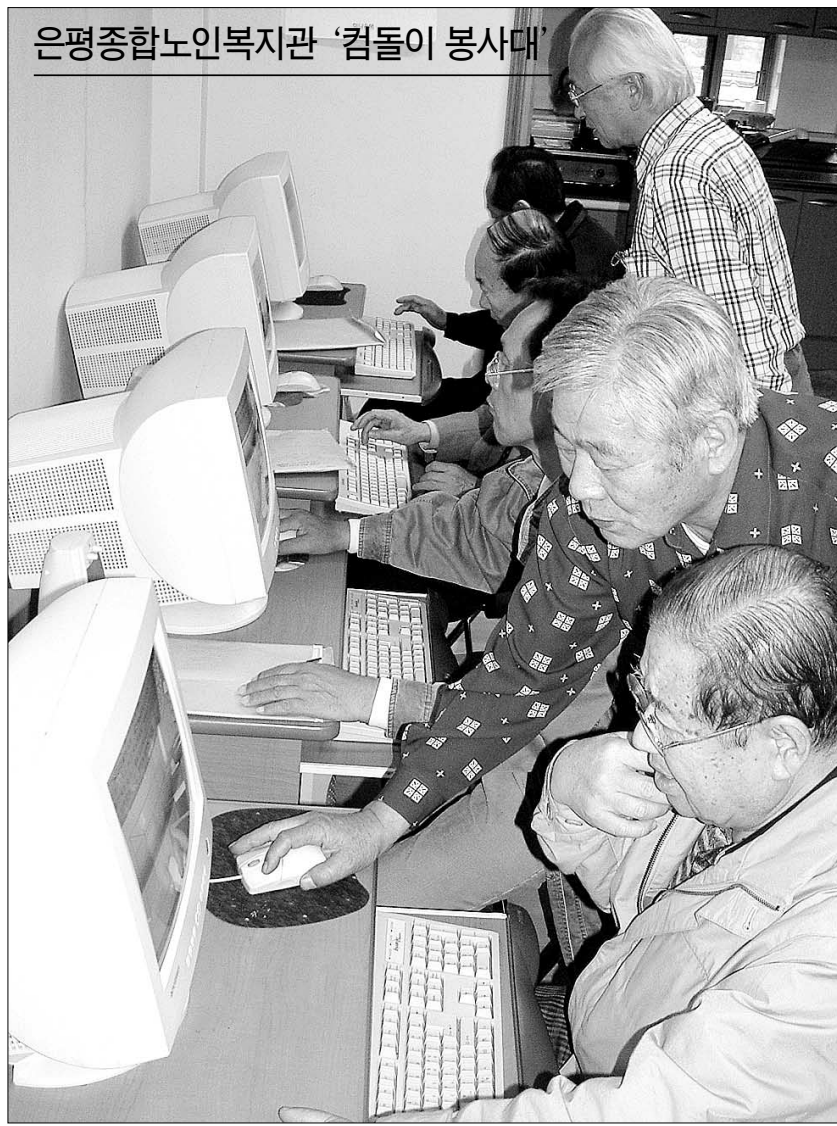
보조요원 넘어서 강의 나설 정도

선생, 제자 연령 비슷 마음도 척척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서도 ‘컴퓨터’란 화두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아 그 마음은 절기까지 하다.

“얼마 전 60세 노인이 등록신청을 하러와 대뜸 ‘이 나이에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러근요. 뭔가 할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젊음이고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컴돌이 봉사대뿐만 아니라 복지관 연극반과 민화반 등의 강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윤현(70) 할머니는 노년의 열정 하나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분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의 활발한 봉사활동에서 오롯이 배어났다. 그런 이들이 하나 둘 모인 봉사단하기에 다짐 또한 웅장하다.



은평종합노년복지관 ‘컴돌이 봉사대’

◀서울 은평복지관 분소 어르신전문문화복지센터에서 컴퓨터 무료강좌를 열고 있는 권문래(위), 김윤식(아래) 어르신.

“컴맹이었던 노인들이 이 정도 가르치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는 칭찬은 원치 않습니다. 그 어느 문화회관보다 잘,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컴돌이 봉사단이 되려고 합니다.” (02)385-1351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브렌다 쇼샤나 박사(D)

無心에 이르는 메시지 전달

“선(禪) 수행은 특이하거나 어렵지 않다. 놀람게도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다.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단지 경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명상의 시간(Zen Miracle)’ 중에서)

미국의 유명 심리 치료사이자 선 마스터인 브렌다 쇼샤나(Brenda Shoshanna) 박사는 가족, 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선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선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청

집중하되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다시 생각하고, 거듭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모든 불필요한 행동과 생각, 계획도 세우지 말라. 해변을 걸으며(마음 편한 것만이라도) 좋다 그 순간을 즐기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전혀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봐라.(‘명상의 시간’ 중에서)

선(禪)은 본래부터 일상사를 떠난 것이 아니지만, 현대의 미국인인 브렌다 박사에게 있어 선은 더욱 ‘실용적’이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수행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것을 처리할 뛰어난 방법으로서

사용된다. 수행의 핵심은 집을 청소하는 것, 과감하게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용감하게 털어내는 것과 같다.

뉴욕심리학협회, 바나드대학, 존 F. 케네디 의료센터, 에이델피대학 등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25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고 심리치



▷브렌다 쇼샤나 박사

화두 간결하게 풀어 심리치료에 적용

일상사와 함께하는 실용적 수행 강조

사는 “순간순간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지침은 이렇다. “말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도록 하라. 지금 서있는 곳에 대해 생각하고,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집중하라.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이렇게 하라.”

대표적인 선어록인 <무문관> <벽암록> 등의 난해한 화두를 현대적인 언어로 간결하게 풀이하며 도시인들의 심적 고통을 풀어주는 브렌다 박사의 선 심리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간순간을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등 간단한 메시지들은 단순하면서도 무심(無心)에 이르는 강력한 암시를 준다.

“지금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료사로 활동해 온 브렌다 박사는 선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과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에 접근하는 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녀는, 우리가 매일 받는 ‘일상의 선물과 기적’을 깨닫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안팎의 장애(번뇌·망상)를 이해하고 없애으로써 친구를 적으로, 즐거움을 고통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효과적 인 지침을 제시한다. 좌선을 통한 근본적인 힘과 불성(佛性)에 대한 자각을 통해 우울증, 적개심, 혼란 등 온갖 망상은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생각들은 선에 대한 간략한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선은 깨달음을 통해 기적을 보며,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수행이다.” 김재경 기자



▷윤규희 씨.

“佛書보내기 생활화 하세요”

‘삶의 자양분’ 전하려 시작

학생들 눈높이 고려 도서 선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다는 깨달음을 향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보시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친다. 이 같은 보시를 소리지르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불자가 있다. 윤규희(58) 씨가 그 주인공. 윤 씨는 6개월 전부터 불서전문 책방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시간 날 때마다 불교서적을 구입, 매달 3곳의 중·고등학교에 불서를 보시하며 꾸준한 선

행을 베풀고 있다. “불교를 하나도 모를 때는 불서의 가치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불교공부를 시작해 보니 불서읽기가 삶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지요.”

윤 씨는 10년 동안 각종 불서저작들을 탐독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겨갔다. 체계적인 학습과정은 밟지 못했지만 그렇게 키운 안목으로 양질의 불서도 많이 접하게 됐다. 그러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 불서만한 지침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불서 기증을 시작했다. 그렇게 전달된 책들은 속초고등학교의 ‘불교반’, 속초초교 및 현북중학교의 도서관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보내는 책의 종류는 일정치 않지만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책은 많지만 막상 읽고 싶은 책은 많지 않으니요.”

그런 까닭에 윤 씨는 만화화 된 불서를 자주 고르게 된다. 독자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 눈높이를 고려해서다. 아이들이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개설서나 법어집도 함께 보내 불서읽기 환경 마련에도 애쓰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묵묵히 바가 있어 언제나 즐거운 윤 씨. 그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 내세우기 부끄럽지만 다른 불자들도 불서보내기·읽기를 생활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등에서

WWW.HYPNOS114.COM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막의식을 행했던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최면아카데미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완전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법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운명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최면아카데미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스스로 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안정으로 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내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속인들과 빙의령에게 이야기하듯 진정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읽을지 않고 이를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최면아카데미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 0 사 0 0 합장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최면 이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 연령별 최면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식재 및 통찰, 자기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 전생퇴행 최면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한다.
4. 미래전생 최면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 영기천도 실기 : 빙의된 영기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안, 해원과정, 빙의중재치유, 영기치유, 영기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 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임계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 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강화와 최면유입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라선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대영 임재형 박사

상당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의민심학회 회장
한국교육의민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부리찾기운동본부 부회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부원 전생·빙의 연구소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12:30
2003년 11월 21, 28일, 12월 5, 12일
[교육기간] 매주 금요일, 총 4회, 30시간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요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